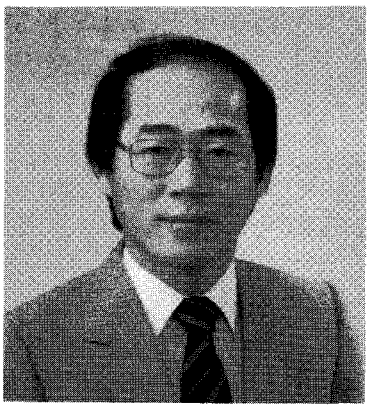


에너지經濟硏究院院長
경 제 학 박 사
李 會 晟

이 글은 지난 1월 24일 한국가스연맹이 주최한 조찬간담회(朝餐懇談會)에서 있었던 강연내용을 풀어 여기에 옮긴 것이다.

"에너지소비 절약", "에너지효율향상"등의 명제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1992년의 1/4분기도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다시한번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므로 여기에 옮겨 싣는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째 원유가의 동향과 전망, 둘째 금년도 국내수급의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번째 그것을 기초로해서 금년도 정부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절약정책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러한 배경하에서 장·단기 가스산업의 과제와 비젼등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油價, 구소련의 정변으로 치솟아

첫째, 최근의 원유가 동향에 대해서 최근의 관심사는 이것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전세계가 경험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유가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WTI(West Texas Intermediate/서부 텍사스 중질유)값이 현재 18달러 90센트정도인데 비해 작년 10월에는 약 23달러 20센트로 지금보다 5달러정도 더 높은 수준에 있었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지금 떨어지는 요인은 작년 10월에 올라갔던 요인과는 거꾸로 분석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0월의 유가는 세가지 요인때문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8월달 소련의 정변입니다. 9월과 10월이 지나가면서 소련에서의 사태가 소련의 석유수급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수출감소가 크게 우려됐다는 점이 유가를 그렇게 치솟게 하는 근본적인 상황으로 작용했습니다.

두번째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석유회사 및 기타 실수요자들이 석유 재고의 비축을 갑자기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고 비축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물(現物)시장에서 전개됐습니다.

세번째는 그러한 현물시장에서의 변화가 즉각 선물(先物)시장에 영향을 주

게되어 선물시장에서 미래계약에 관한 매입주문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말하자면 값이 올라가기 전에 앞으로 2~3개월 후의 물량에 대해 주문을 하는 그런 장기계약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세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해서 9월에 평균 20달러하던 석유값이 한달 사이에 3달러정도 뛰는 유가상승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정변 안정후 油價 급락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소련 정치불안이 세계 석유수급에 주는 영향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정치가 불안해 경제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악화로 인한 소련국내 석유소비량이 상당히 감소하여 역설적으로 생산물량 중에서 수출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련경제 위축이 국내소비를 떨어뜨리고 수출여력을 신장시키게 된 것입니다. 전에 예측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즉 소련의 요인이라는 것이 세계석유시장을 불안케하는 요인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으로 상황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세계석유가격을 결정하는 거래자들 생각에 자리잡게 되자 넉넉치 못하다고 생각됐던 석유회사들의 재고와 소비국의 재고등이 하루아침에 과잉상태라는 해석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석유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와같이 해석이 갈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월의 석유값 하락, 과잉계약의 청산움직임이 원인

지난 12월 이후부터 行態를 살펴보았을때 세계석유시장에서는 현재 있는 석유 재고가 분명히 과잉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현재 갖고있는 재고가 세계의 석유수급자들에 의해서 과잉으로 해석되기 시작하자 즉각 현물시장에서는 물건을 떨어버리는 行態가 발생했고, 이것이 소위 현물시장에서의 즉각처리 물량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선물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선물시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물건을 팔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되도록 현재의 값을 유지하는 선에서 앞으로 2~3개월 뒤에 팔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소위 단기계약의 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동시에 9~10월의 장기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1월들어 도래일이 다가오면서 그것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장기계약을 청산한다는 의미는 물건을 시장에 많이 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1월달 현물시장에서 단기계약이 증가하고, 그다음 10월달 맺어놓았던 장기계약을 청산하는 두가지의 선물거래가 한번에 몰리면서 1월의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값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소련 요인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락」의 석유수출 재개여부 석유값에 영향

여기에 추가해서 1월달 들어 「이락」 요인이 생겼습니다. UN에서의 이락 경제제조치중 하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1억 배럴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락이 거부한 상황에서 지난 1월 10일 경에 다시만나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原單位向上 위한 效率개선 가장 시급한 과제.

건물구조, 에너지機材, 산업구조와 산업공정, 수송에너지 절감등 효율대책 빨리 서둘러야

UN의 위치와 이락의 희망 사이에 격차가 심해 수출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소문에는 이락의 수출재개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시장에서 값이 1달러내지 1달러50센트정도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라는 소문이 다시 나돌면 값은 다시 1달러 내지 1달러50센트 원상회복되는 그런 行態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원유가격 동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국내석유수요, 55%수입으로 충당

1/4분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수급요인으로 보아야 할 사항은 미국에서의 석유수입량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미국은 국내수요의 약 55%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세계석유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와 못지않게 미국의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이 보다더 적극적으로 유가형성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못합니다. 불경기의 기간도 예상보다 깁니다. 불경기의 깊이도 예상보다 더 깊습니다. 석유수입수요도 생각만큼 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석유수입의 침체도 현재 원유가하락의 근원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영향 크지만 감산 조치해도 석유값 변동어려워

최근에 산유국을 포함한 많은 그룹의 사람들은 이러한 낮은 유가를 피하기 위해 산유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초에 산유국 회의가 다시 열리는데 거기서 유가안정을 위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대폭적인 감산을 한다거나 그밖에 어떤 극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현재 낮은 유가가 OPEC이 희망하는대로 17달러선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월 21일에 「사우디」가 감산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사우디에서의 그런 조치는 너무 늦었고 또 너무 규모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가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보유한 재고의 평가가 너무 많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감산조치를 한다해도 결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유가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금리 인하에도 증권값 되레 하락, 당국의 "불황인정"으로 받아 들여졌기 때문

실제조치를 평가하는 기준의 척도가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예상했던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사전에 판단키는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비근한 예로 미국 경기가 나빠서 한달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eral Reserve Board가 금리를 최근에 1% 인하하기에 앞서서 0.5%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 증권시장의 주식값은 도리어 크게 하락했습니다.

보통 금리인하조치를 발표하면 주가가 크게 오르기 마련이고 또 그것을 노리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인데 하락했습니다. 그때의 일반적인 평가는 인하폭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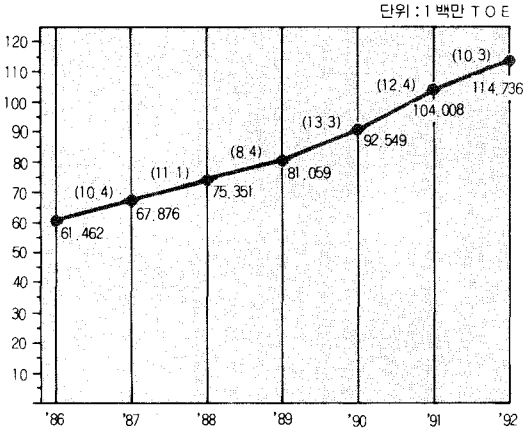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경제가 불황이로구나, 즉 미국중앙은행 총재도 미국경제가 불황임을 인정하고 있구나 라

표1. 최종에너지수요

단위 : 천TOE

	1990	1991	1992	'91/'90	'92/'91
산 업	36,150.3	41,351.6	47,234.1	14.4	14.2
수 송	14,173.3	17,110.8	19,035.6	20.7	11.3
가정·상 업	21,896.9	22,528.7	23,422.6	2.9	4.0
공공·기 타	2,811.1	2,985.6	3,126.9	6.2	4.7
계	75,031.7	83,976.7	92,819.3	11.9	10.5

표2. 1차에너지 소비 추이



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대감이 무엇인가는 사전에 알 수 없는 어려운 요인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유에 대한 예상이나 산유국의 조치등도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잘 치르기 위해 미국정부 석유값 17달러선이상 유지

92년도 앞으로 남은 기간 원유가를 예상해보면, 현재 WTI값은 18~19달러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때 17달러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세가지 이유때문입니다.

첫째는 미국 선거, 두번째는 미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세번째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산유국이 상당한 재정 궁핍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유가격을 어느정도 안정시키는 선에서 유지하고자 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세가지 요인입니다.

첫째 미국선거라는 요인을 살펴보면 「부시」정부는 석유값 정책에 있어서 텍사스, 루이지애나등 미국내에서의 석유생산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WTI값이 18달러나 더 나아가 17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서의 석유생산업계의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 기본적인 권력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산업체의 경기를 나쁘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예상키 어려운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부는 WTI값을 17달러이상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산유국들 재정지출 누적 완화위해 17달러 이상선 유지에 안간힘

그 다음에 과연 그렇게 일정가격 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가 미국에 있느냐하는 점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한 장치가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걸프전을 치르면서 미국과 사우디간에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또 사우디의 석유정책이란 것은 크게 보면 미국의 산업정책내에서 조정될 수도 있는 한 파트의 경제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사우디간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할지라도 특히 사우디등 산유국 스스로 보았을때 상당한 재정지출 수요가 누적돼왔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점이 유가를 17달러 이상선에서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다소비 미국 · 다수출 사우디 이해관계 일치

이렇게 보았을때 석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사우디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미국의 이해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의 돌출요인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라크 정권의 유지문제입니다. 즉「사담 후세인」의 몰락여부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정권이 붕괴된다면 석유가격은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락의 기간은 짧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즉시 원상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시적 하락과 평상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종래의 선물시장에서의 가

표3.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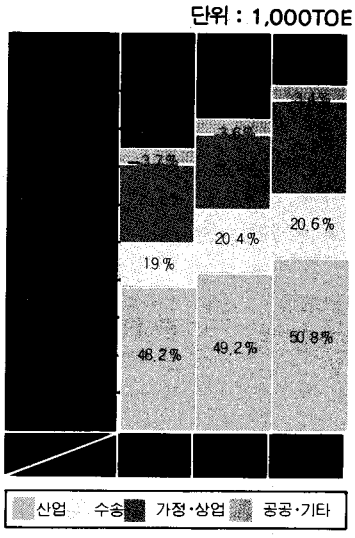


표4. 석유수요 전망(LPG 제외)

단위 : 천배럴

	1990	1991	1992	'91/'90	'92/'91
산 업	137,012.2	158,884.0	195,778.0	16.0	23.2
에너지유	84,118.1	86,690.0	93,507.0	3.1	7.9
비에너지유	52,894.1	72,194.0	102,271.0	36.5	41.7
수 송	89,860.6	109,145.0	121,932.0	21.5	11.7
휘 발 유	22,250.0	27,145.6	32,275.0	22.0	18.9
경 유	52,973.7	64,623.0	71,538.0	22.0	10.7
가정·상업	47,817.6	53,711.1	58,162.0	12.3	8.3
발 전	28,720.1	41,521.4	55,273.8	44.6	33.1
계	320,636.9	378,845.5	448,751.3	18.2	18.5

※ 합계는 LPG를 제외한 1차 에너지기준 총 석유수요임

격반영기능이 앞으로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세인 정권내에서는 상당한 내부 분열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후세인의 친척들간의 싸움으로 상당한 알력과 암투가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선거때까지 후세인이 계속 남게되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제거계획을 전개시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가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2/4분기내에 모든것이 완료될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석유화학 공장 투자자본 방대하여 가동률 낮추기는 어려워

두번째 금년도 국내수급의 몇가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석유화학용의 납사사용량이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두개의 새로운 공장이 준공됐고 일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사용증가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가동률이 작년보다 더 높게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석유화학공장의 가동률은 가능한한 낮추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더군다나 그런 커다란 장치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았을때, 그 시설의 가동율을 낮게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용의 오일 사용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전력수요 메우기 위한 석유 발전소 가동도 석유수요 증가 원인

그 다음 작년도에 이어서 역시 금년도에도 발전쪽에서의 석유수요가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작년과 비슷한 요인입니다.

국내에서의 전기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전력공급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석유발전소를 최대한 가동하는 대응책을 계속 진행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는 금년도 상업용 건물이 상당히 많이 준공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 준공되는 상업용 건물의 천연가스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전력수요쪽에서 주택용, 업무용등을 위시한 전반적으로 수요증가추세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상향 커브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原單位 높고 증가세 둔화 힘들듯

이러한 에너지 소비의 패턴을 보았을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당한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에너지 소비증가가 국가경제에 주는 커다란 부담때문에 정부는 금년을 에너지 절약의 원년(元年)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여러가지 절약시책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증가의 모양을 原單位가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같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에너지의 사용량이 비교가능한 기준으로 재볼때 다른나라 또는 다른나라에 있는 산업 등과 견주어 상당히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별 원단위 즉 가령, 특정한 플랜트에서의 원단위, 특정 자동차의 원단위등을 보았을때는 상당부분 외국의 숫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철강산업 등 원단위 안뒤지나 건물 에너지소비 원단위 현저히 높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철강산업에서의 에너지 쓰임새는 세계 어느나라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에너지 쓰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별 원단위 측면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은 건물(가옥)행태의 건조물인데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원단위가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가 높다는 것은 결국「시스템 原單位」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개별적인 원단위는 상당히 우수하지만 에너지를 근원적으로 많이 쓰는 소비업종이 많아서 전체 에너지 GNP율이 높은 결과를 초래한 산업구조로 돼있다는 것입니다.

국산차량 원단위 우수해도 수송 시스템 원단위 높아

또 수송분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상당히 에너지효율이 우수한데 이것이 전반적인 전체 수송수요를 형성하는 측면에서의 효율은 결코(총체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보았을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낮에 도심에 운행되고 있는 텅텅 빈 버스등은 시스템효율이 낮다는 점을 반영하는 좋은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효율개선이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서는 개별 원단위를 높힘과 동시에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절약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상황이 앞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効率改善 5가지 課題

첫째는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의 고효율화를 이루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빌딩이나 산업내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에너지기자재가 고효율화를 이루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산업체내에서의 공정(工程)의 원단위가 계속 감소돼야 겠으며,

네번째는 산업구조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바뀌질 수 있어야 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앞으로 에너지수입부담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석유수송측의 절약을 위해서는 석유수송에너지 절약을 위한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다는 점입니다.

건물 신축시의 에너지규제 너무 미약, 미국 가옥매매시에도 에너지규제 받아

빌딩의 에너지효율을 높히기 위해서는 빌딩건축규제 측면에서 볼때 에너지 측면의 효율을 높힐 수 있는 과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딩 건축시에 복잡다기한 소방규제라는 것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에너지효율을 높히기 위한 규제는 단열규제 뿐이고 그나마 그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령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옥매매시에 주정부가 인정하는 일정수준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가옥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해 집니다.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주의 빌딩규제는 전력회사가 전력시설시에 빌딩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해보아서 주정부(州政府) 인정기준의 이상과 이하에 차별을 둡니다. 기준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전력공급계약시에 대단한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 이상으로 효율이 좋을 경우 벌과금 대신에 커다란 보상금을 줍니다.

국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있어도 수요 적어

고효율기자재사용 측면에서는 현재

표5. 가 스 수 요

(도시가스) 단위 : 백만㎥

	1990	1991	1992	91/90	92/91
가 정	432.7	694.1	943.8	60.4	36.6
상 업	307.2	365.5	467.4	19.0	27.9
산 업	223.4	306.0	388.5	37.0	26.9
계	963.3	1,365.6	1,799.7	41.8	31.7

(LPG) 단위 : 천배럴

산 업	2,250.4	2,868.0	3,554.0	27.4	23.9
수 송	11,283.9	12,422.9	14,070.0	10.1	13.3
가정·상업	19,692.8	23,695.1	25,050.0	20.3	5.7
계	33,306.7	39,201.0	42,794.0	17.7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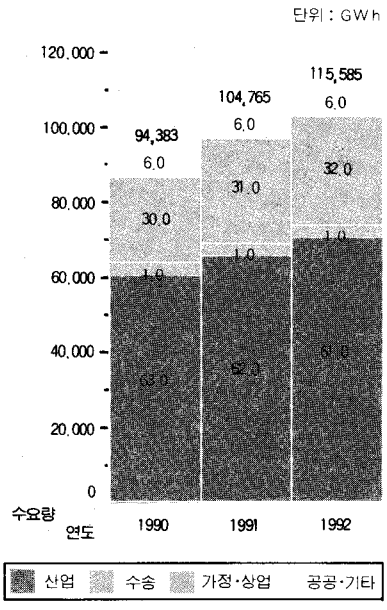
※ 합계는 최종에너지소비 기준 총LPG소비량을 의미함.

표6. 전 력 수 요 전 망

단위 : GWH

	1990	1991	1992	91/90	92/91
산 업	59,248	64,710	70,385	9.2	8.8
수 송	1,012	1,051	1,119	3.9	6.5
가정 상업	28,147	32,514	36,966	15.5	13.7
공 공 기 타	5,976	6,490	7,115	8.6	9.6
계	94,383	104,765	115,585	11.0	10.3

표7. 부문별 전력수요 비율



여러가지 가전제품 및 산업체의 동력등을 보았을때 상당히 효율적인 기자재가 있음에도 보급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고효율 기자재하면 무조건 10년~20년후에 개발해서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장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기자재 사용권장을 위해 보상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Rebate(할인)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절약형 산업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값이 높아야 합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이나 국제경쟁력 때문에 에너지 값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석유등 에너지 값을 낮게 유지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석유를 다소비(낭비)하는 업종을 보조해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석유 100% 수입하면서 낮은 에너지값 시행은 모순

우리나라와 같이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에서 석유다소비 업종을 보조한다는 것은 어떤 여건에서 보더라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Lobby가 부족해서 에너지값이 계속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구조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상황은 에너지 절약을 업으로 알고, 그것이 잘돼야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산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희망은 수요가 계속 신장해서 기본적인 이익은 보장돼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같이 절약에 대한 Lobby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정책도구나 목표가 국민이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나의 사업이나 기업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정부가 절약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지원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가야

그 내용은 에너지 쓰임새를 진단 관리하고 투자를 알선하고 투자도 하고 사업평가도 하는 등 에너지서비스를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전문적인 기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카나다, 영국, 다른 EC 나라들에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하나의 좋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체내에서 에너지의 비용(평균 3%)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업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할때 에너지 절약에의 투자를 항상 낮게 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생기면 이 3%의 비중을 이익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현실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에너지절약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중에 미국과 합작이 필요하다면 허용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금년에 최소한 3개정도의 전문기업을 만들어서 대형빌딩 산업공단등의 에너지 진단투자 알선 평가를 통해 절약을 사업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가스 산업계 효율향상, 환경개선등 위해 활발한 활동 벌일때

끝으로 가스산업의 장기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

업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스산업계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참여할 수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최종수용가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공급업계가 바로 가스이고 그 다음이 전력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수용가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 수있고 또 어느정도 쓰임새있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판단할 수있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스산업은 발전용공급과 도시가스 확대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용 형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가스업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력생산의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문에서도 앞으로 민자(民資)발전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스업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스를 이용한 소형코제너레이션 기술은 성장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형빌딩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가스시장의 확대는 가스산업뿐 아니라 환경, 경제등 여러 측면에서 경제전체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경제운용을 합리화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스업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송부문 대체에너지 사용기술 개발돼야

그 다음에 세미나들을 통해 가스업계에서도 많이 논의됐습니다만, 앞으로 수송측에서 석유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의 활용방안은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 전기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CNG)입니다.

앞으로 가스업계가 수송부문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사업화를 통해 보다 확고하게 전망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가스수요는 계속 신장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원확보를 위해서 해외가스자원 탐사개발에 가스업계가 많이 참여하고 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국내시장개발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었지만 앞으로는 생산측면에서의 자원확보가 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업계가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업비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개별 原單位 낮은 분야 있으나 총체적인 시스템原單位 높은 것이 문제.

에너지절약 투철한 국민, 기업가 많아져야 장래있다.

에너지사용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효율개선"이며 그 방법으로는 개별原單位를 높힘과 동시에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하는 것인데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시행과 사용측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